

中 몽니에 韓 전기차 배터리 ‘한숨’

삼성SDI·LG화학 배터리 탑재 차량 5종 보조금 지급 제외... “중국 정부의 차별 1년 이상 계속”

중국 정부의 몽니로 삼성SDI와 LG화학의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만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중국 정부의 차별은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충격적인 일은 아니다”면서도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궤도를 찾지 못하는 등 난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화신식부는 지난달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목록에는 493개 차량 모델이 포함됐지만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목록에 498개 차량이 있었다. 하지만 오후 발표된 목록에서는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 5개 차량이 제외됐다.

삼성SDI 배터리를 쓰는 산시자동차의 전기트럭,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간 상하이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카, 동펄자동차의 전기트럭, 상하이자동차의 퉁웨이 하이브리드카 2종 등 5개 모델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를 염두에 둔 일종의 보복 조치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관 광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코엑스 시무식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도 코엑스 시무식에서 임직원들이 소원 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한 보복 조치를 넓히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SDI와 LG화학은 중국 전기버스 시장 공략과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시안과 난징에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다.

삼성SDI와 LG화학, 일본의 파나소닉 등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일종인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은 양극재를 리튬, 인산, 철로 만든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LFP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아 더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홍콩에서 삼원계 방식의 니켈카드뮴량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버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들어 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 과정도 순탄치 못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 6월 4차 인증 때 탈락해 5차 인증을 기다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심사를 미루며 기준을 강화했다.

리튬이온전지의 중국 내에서의 연간

생산 능력을 기준 0.2기가와트시(GWh)에서 8기가와트시(GWh)로 40 배 이상 대폭 높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 또 최근 2년간 전기차 배터리와 연관된 중대 사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와 LG화학은 현지공장 가동을 시작한 지 1년 가량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와는 연관이 없다.

하지만 중국 연간 생산 능력은 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생산능력 80억Wh를 달성한 기업은 현재 중국의 바이디(BYD)와 닝더스다 이 2개 업체에 불과하다. /뉴시스

이주열 “경제 불확실성 커... 통화정책 신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올 한 해도 경제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외여건 등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신중히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다과회에서 “지난해 경제가 어려웠고 결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며 “올 한 해도 경제 여건 등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국

가 경제를 위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한은의 정체성과 중심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총재는 “올해는 그야말로 지켜보고 그때 그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여건 변화를 예단하기 어렵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2번일지 3번일지, 또 올해 올리지 못할 것 이란 얘기도 있어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현안 보고에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을 용인

할 수 있는냐는 질의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리차 역전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미 금리인상으로) 더 어려워지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도록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도 한미간 금리차

“올해는 지켜보고 그때 그때 결정할 수밖에 없어”

가 역전된 적이 있고 지금은 역전이라도 관측을 지어떨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가 올릴 것으로 예상되니 그때마다 어떤 영향을 받는 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적절한 소통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소통의 확대를 가지적으로 느끼도록 하겠다”며 “특히 올해부터 금융통화위원회를 8번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자칫 소통이 소홀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지엠, 연간 최대 내수실적 달성

2016년 내수판매 총 18만 275대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가 2016년 한 해 동안 내수시장에서 총 18만275대를 판매하며 2002년 회사 출범 이래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12월 내수판매는 총 1만8313대로, 올해 최대 판매량이자 회사 출범 이래 최대 월간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등 한국지엠 주력 모델의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지난달 실적은 견인했다.

말리부는 지난 12월 한달 간 내수시장에서 4154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244.7%가 증가했다.

말리부는 지난해 6월 판매개시 이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며 제품의 상품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2016 올해의 안전한 차에 선정되기도 했다.

스파크는 지난 한 달 간 총 7078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2.9%가 증가했으며, 트랙스는 2603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43.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12월 한달 간 총 3만5968대를 수출했으며, 한국지엠의 2016년 연간 판매대수는 총 59만7165대(내수 18만275대, 수출 41만6890대, CKD 제외)를 기록했다. /조선=류정곤 기자

산은 “올해 기준금리 1.25% 동결 전망”

“가계부채·美 긴축정책 부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유지할 것이라 주장이 나왔다.

산업은행은 2일 ‘2017년 한국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산은은 올해 주요 경제 이슈 중 ‘금리 변동성 확대’ 부문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적정 기준금리는 0.72%로 현 수준에서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2015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전기대비 1% 미만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 중이고, 올해 성장률도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뉴시스

단 산은은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의 긴축정책 전환 등 두 가지 대내외 악재로 인한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은수 산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약 1300조 원 수준이고 특히 제2금융권 대출 확대가 가계의 재정건전성 훼손 및 금융안정성 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은 2015년 12월과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담과 불가항력 우려가 상존하는 상태에서 한은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줄면 한국에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며 “올해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1.25%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생애 첫 연구’ 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생애 첫 연구’ 사업의 상반기 신규과제를 오는 3일부터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연구사업 연구비 수혜를 받지 못한 만 39세 미만의 이공분야 점입교원을 대상으로 연 3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부는 학문분야별 주요학회 및 주요대학 산학협력단, 신진연구자 등 대학·연구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사업의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생애 첫 연구’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의 도전·창의성이 인정된 연구자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올해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어 약 1000명의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시기(1학기 3월·2학기 9월)에 맞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지원된다.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는 오는 3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www.jbbank.co.kr

Viva 2017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고객님의 2017년 한 해가
눈부시게 빛나시길 기원합니다